

목차

해외소식

- 04 **쫄리읍쑤어, 캄보디아**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다 | 박주선
- 06 **살라맛, 민다나오**
배우 한지민과 작가 노희경, 3일간 알라원에서 임시교사 되다 | 최정연
- 08 **나마스떼, 동게스와리**
아이들 모두가 교육받고 교육을 통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 김혜원
구호품 잘 받았어요 | 김정준

특집기획

- 14 **민다나오 JTS의 학교건축과 민다나오의 평화**

국내소식

- 18 **2009 JTS 북한어린이 돕기**
북한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요 | 편집팀
북한어린이에게 의약품은 사랑입니다 | 편집팀
- 22 **JTS와의 특별한 만남**
함께하는 행복 나눔 바자회 | 박현이 · 신선일

나눔회원소식

- 24 **활동터 소식**
국내 ·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28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 명단확인란

“ 주민들이 그룹을 만들고, 그룹별로 정해진 날짜에 공사에 참여하면서 조금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다

박주선 캄보디아JTS

상처 받은 마을

6월 1일 콕로빙과 스와이 쿤 두 마을의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짓게 되었다. 프레이뱅크의 이 두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은 각각 3킬로, 4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 이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콕로빙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농로로 사용하는 땅에 학교를 짓겠다고 하였다.

제이티에스는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을 막아 학교를 지을 수 없으니 학교 부지를 마련한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나무가 우거진 터를 개간하여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었다. 그랬더니 원래 그 곳은 학교가 있던 자리였다는 대답이었다. 폴팟정권 (크메르 루지 정권)때 폐교된 후 방치되어 학교터는 나무와 풀들로 무성했다.

크메르 루지정권 때 캄보디아의 지식인들은 학살당하고 학교는 폐교되었고 사람들은 국영농장에 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하거나 정부에서 지시한 일들을 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개간하기 위해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15일 후에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학교부지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4월, 캄보디아 추석 이후 마을에서 학교부지 개간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마을에 도착하여 지난 번 방문했던 그 곳을 둘러 본 순간 '아!' 감동의 소리가 나왔다. 주민들은 학교건물 뿐만 아니라, 운동장 부지를 위해 아름드리 코코넛 나무들까지 다 베어내고 학교터전을 깔끔하게 준비해 놓

▼ 학교건축 주민 사인이 들어간 동의서



학교부지 개간하기

았던 것이다.

마을 원로 JTS 원칙을 이해

주민들이 힘 모아 부지를 개간한 것도 감동이었는데, 이장님과 마을원로들은 학교 건축 공사에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학교를 국립학교로 인가하여 선생님 파견 및 학교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JTS 활동원칙을 이해하여 사전에 전체주민들의 학교 공사 참여 동의를 받아놓았고, 지방교육청에 학교부지 면적을 확인하는 증명서 및 건축허가, 그리고 지방정부에 농로를 학교부지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증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사전준비를 위해 이장님은 3회에 걸쳐 지방정부와 회의를 했다.

마을주민 회의



아픔을 딛고 공사를 시작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는 그 곳에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짓게 되었다. 5월에 콕로빙마을에서 스와이 쿤 주민들까지 참석한 전체 주민회의를 한 후 제이티에스 마을과 지방정부가 MOA 체결을 한 뒤 바로 공사를 시작했다. 콕크라상 마을에서 이미 한 달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험으로 콕로빙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농번기에도 계속되다

4월, 캄보디아에 우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농사철이 된다. 바쁜 농번기에는 1년 생활기반이 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민들이 학교공사에 참여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7월에는 적은 인원의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룹을 만들고, 그룹별로 정해진 날짜에 공사에 참여하면서 조금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콕로빙 마을은 창문과 문틀이 들어간 학교 벽을 쌓고 있다.

어른들에게 희망의 공간,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 - 학교

지난 번 콕로빙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해 저무는 저녁이었다. 그 공사현장에 어린이들이 모래와 자갈 더미 위에서 뒹굴고 뛰어서 오르내리면서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정겹고 사랑스러워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

배우 한지민과 작가 노희경, 3일간 알라원에서 임시교사되다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 드라마작가이자 JTS홍보대사인 노희경씨와 한지민씨를 비롯한 10여명의 스텝이 해발 2000여 미터에 있는 알라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의 손님맞이로 민다나오 자원활동가인 미오와 준준은 알라원 마을주민들과 함께 길에 난 풀을 자르고 간이부엌도 똑딱해서 만들고 화장실청소와 학교 앞 풀밭을 정리했다. 또 자원활동가인 띠에자와 그 언니는 그 전주에 미리 가서 아이들과 예비수업도 해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신경써 준 트렐씨 등 민다나오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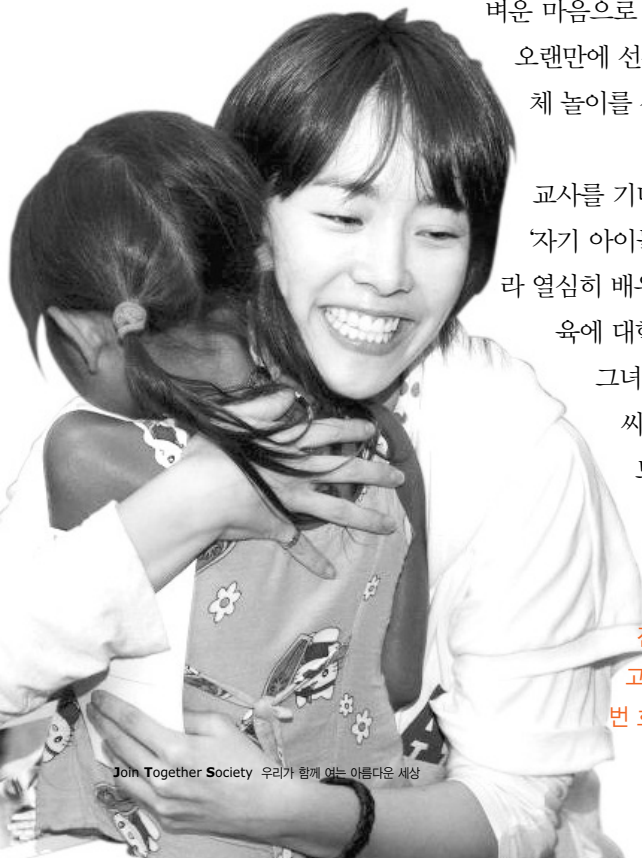
한지민 등은 레코디언 연주, 공동체 놀이, 그림 그리기, 농구하기, 떡볶이 만들어주기,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칫솔질하기를 하면서 전기 없는 산속 마을 아이들과 생활을 함께 하였다. 한 마디로

한 마음 내어 이들에게 임시교사로서 같이 지낸 것이다.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함께 한 시간이었고, 알라원 아이들도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나 교실에서 레코디언을 배우고 공동체 놀이를 신나게 함께 하였다.

교사를 기다리고 있던 대부분이 학부모인 마을 주민들은 자기 아이들이 짧은 며칠이었지만 진지하게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이들의 가능성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이야기하며, 그녀와 함께 했던 민다나오의 스텝들 또한 한지민씨와 같이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 했다.

최정연 필리핀JTS

한지민씨는 tvN 월드스페셜 LOVE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방문기를 소책자 <우리 벌써 친구가 됐어요>로 엮었고, 그 수익금 일부를 제이티에스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는 한지민씨의 임시교사 모습 일부를 발췌했다.



한지민 일행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도착해서도 다시 민다나오 섬까지 두 시간을 더 국내선으로 가야하는 곳. 거기서도 다시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산길 -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정글을 헤쳐가야 한다 - 을 18km를 걸어 들어가야 했다.

산을 오르다 한 번 씩 다리힘을 하며 동료들을 기다리는데, 두꺼운 등산양말을 뚫고 거머리가 들어왔다. “으악!” 소리를 지르며 떼어냈을 때는 이미 늦어서, 실처럼 가느다랗던 놈이 순식간에 통통하게 부풀어 올랐다. 양말을 벗어보니, 얼마나 깊이 물었는지 한 시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다.

그때 민다나오에서 활동하는 최정연 간사의 한마디가 있었다.

“적당히 먹고 배부르면 떨어져요.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좀 주세요.”

‘하하하! 이런 거였구나!’

한지민씨는 그렇게 생각을 돌리고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는 산 속 마을 알라원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그녀는 ‘J’ 라는 영어이름을 사용하면서 선생님이 시간을 보낸다. 마을의 환영 행사를 마치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피리를 가르친다. 낮 수업이 끝나고 아쉬워서 저녁에도 학교를 열고, 칠흙같은 산 속에 가져간 촛불을 켜고 촛불학교를 열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아이들이 커서 되고 싶은 사람을 그려보는 그림시간도 가졌다. JTS의 지원으로 겨우 학교는 생겼지만 선생님이 오지 않아 수업을 못

하는 학교에 ‘선생님’ 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소녀도 있었다.

알라원 마을잔치를 겸한 학예발표는 축제였다. 비오는 날에 가정방문을 하여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노희경 작가는 소박한 의료캠프를 차려 “아픈 사람은 오세요” 하며 손톱도 깎아주고 작은 상처들을 치료해주었다.

깊은 밤, 교실 지붕을 세차게 때리며 소나기가 쏟아졌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난 한지민씨, 불빛 없는 밤. 교실 뒤쪽에 간이 시설로 파놓은 화장실까지 가자니 더러워 겁이 났다. 동행하려고 두어 명이 따라나서서 간다.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저쪽에서도 불빛이 반짝인다. 비는 세차게 쏟아지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그때서야 ‘아, 아까 나눠줬던 손전등!’

저녁 무렵, 집집마다 손전등을 나눠주었던 그들. 밤에 급하게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것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 불빛을 임시교사인 이들에게 비춰주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라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밤새 학교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이다. 그러다 교실에서 손전등이 나오자, 이 집 저 집에서 불빛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내준 것이다.

새벽 5시, 피리소리가 들린다. 환청인가? 아직 해 뜨기 전인데 운동장엔 벌써 아이들이와 있다.

“아메스트라! 마에스트라!”

짐짓 선생님을 부르며 장난을 친다. ✨

“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즐겁게 학교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천민이지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긍심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일입니다. ”

아이들 모두가 교육 받고 교육을 통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정리 편집팀 · 인터뷰 인도JTS 김혜원

김혜원(여, 32세), 쌍키풀 없는 새까만 눈동자에 가늘지만 다부져 보이는 몸집을 한 그녀의 인도명은 따라씨스터. 현지인들이 붙여준 '별'을 의미하는 그 이름은 눈의 반짝임에 연유하지 않았을까? 현재 인도의 비하르주 동게스와리에서 수자타아카데미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가 채충전을 위해 잠시 서울에 왔다. 편집팀에서 그녀를 찾아갔다.



인터뷰하고 있는 인도JTS 김혜원씨

인도에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처음에 정토회를 통하여 인도 아이들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지구 한편에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때 가게 된 것은 아니고 이후에 정토회 들어와서 실무자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 인도에 들어가서는 아이들 밥 해주는 급식 업무와 회계 업무를 4년 정도 했었습니다.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이 한국으로 공부하러 들어오면서 아직 인도인 교사들이 어려서 한국인인 제가 수자타아카데미 교장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장의 역할은 인도인 교사들이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즐겁게 학교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천민이지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긍심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일입니다.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적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동게스와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돌 깨는 일을 하거나 구걸하면서 돈 버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도록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요?

동게스와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바로 지어주지 않고,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나서

야 이름을 지어줍니다. 천민 대다수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 이름과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첫째, 둘째 아이들 순서와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어려워도...'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영유아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은 큰아이 이름을 다시 태어나는 셋째 아이의 이름으로 지어주기도 하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실제로 동게스와리의 부모들은 어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본인들이 천민으로 몇 천년동안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어서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의 자녀를 최소한 초등 학교까지는 다니게 하기 위해 오전에는 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여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집안이 어려우면 오후에 집안일을 도울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본인들도 무지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은 다르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 ▶

“ 아이들이 모두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

게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생 아이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경우인데요. 상급생 아이 중 소개해 주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올해 수자타아카데미 8학년이 된 '까푸르'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빼적 마른 모습의 여학생인데, 교복을 입지 않으면 마치 초등학교 3-4학년 같아 보입니다.



▲ 맨 오른쪽이 까푸르

빠레와에 있는 그녀의 집에 가 보았는데,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었어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시집간 언니가 가끔 오면서 혼자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날 저는 집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나오는데, 인도에서는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야 한다며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는데,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자신이 무언가 해 줄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까푸르는 상급생이 되기 전까지는 말도 별로 없고 수줍음이 너무 많고 몸도 아파서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상급생이 되면서 많이 변화하였지요. 6학년(상급생)이 되면 보통 유치원 교사로 가게 되는데, 병원 보조 스텝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낮에도 마을을 다녀야 하는 일이 까푸르에게는 벅차기도 하였지만, 본인이 병원에서 일하고자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의사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녀를 진단하고는 심장병이 있어 크게 수술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까푸르에게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심장이 안 좋으니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학교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저를 사랑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요.”라고 그녀는 이야기해요. 학교와 친구들은 까푸르에게는 가족입니다.

까푸르와 같이 상급생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단순히 장난꾸러기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되고 보조 스텝이 되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쓰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더 기뻐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보다 받았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

는 것이 아이들 스스로를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희망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침이면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학교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 등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는 하는데 그 때가 참 좋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고, 깡마른 두 다리로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로 오는 아이들을 보면 작은 감동이 생깁니다.

구걸하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해지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민 교사들이 강도 사건 이후 다 떠나기도 하고, 시골에서 여학생들이 남자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여 보내지 않는 부모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천민 아이들을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매일 가정방문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지요.

작년에 결핵과 영양결핍으로 치료를 하다가 학교를 그만 둔 '딜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원자 범우님과 함께 집에도 여러 번 찾아가고 남겨서 따로 공부도 시키면서 다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학교에 오지 않겠다면서 그만 두었습니다. 몇 번 안부를 묻다가 “다시

학교에 올래?” 라고 제안하였더니 선뜻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올해 동생 마하비르와 함께 아자드비가 분교 2학년으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의젓하게 상급생 교사가 되고, 말쑥을 너무 부려 어떻게 하나 싶었던 아이들이 아주 어른스러워져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그래서 믿어주고 실수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면 아직까지도 불가촉천민과 여학생들은 가난과 차별로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두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희망을 놓치지 않는 김혜원씨 같은 교육자가 있어서, JTS 활동을 밀어주시는 후원자님들 또한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인생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인도의 수자타 교육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머뭇머뭇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구호품 잘 받았어요

김정준 인도JTS

지난 7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한 배가 꼬박 19일 걸려 예정보다 하루 늦은 8월 9일 인도 꼴가타항에 도착했다. 이 배에는 한국 두북창고에서 인도 JTS로 보내 준 옷가지와 이불 등 총 676박스의 구호 물품이 담긴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1대가 실려 있었다.

물품 내용을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만 준비해서 문제 발생 소지를 애초에 없앴고 올해부터 바꾼 새로운 통관대행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전 업체에 비하면 놀랍도록! 능숙하게 처리해준 덕에 통관은 사흘 만에 간단히 끝났다.

하지만 항구 창고에서 학교까지 물건을 싣고 갈 트럭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주정부 교통부 장관의 정치 행사와 인도 독립기념일 행사로 이틀간의 통행 제한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후 사흘의 시간이 또 다시 지체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컨테이너를 열고 물품을 옮겨 싣는 날엔 엄청난 폭우가 내려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어렵사리 물품을 다 옮겨 실은 8월 16일 (일), 대형 트럭의 도심 통과가 가능한 밤 10시에 꼴가타를 출발했으나 도중에 트럭 1대는 고장이 나서 반나절을 길에서 보내야만 했다.

8월 18일 (화) 05:40 장장 2박 3일을 달려 드디어 동계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에 도착. 미리 기다

리고 있던 건축부 식구들이 트럭에서 창고로 물품 옮기는 일을 맡아 주었다.

예년에 비하면 통관이며 운송이 참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으나 고된 여정이었다. 혹여 세관에서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것도 그렇지만 비좁고 습한 트럭에서 트럭 기사, 조수 그리고 모기와 한테 어울려 이틀 밤, 사흘 낮을 보낸 것은 솔직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충분히 사용할 옷가지며 이불이 창고에 가득 쌓여 가는 것을 보며 그간 고생했던 기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치 배가 부른 듯 뿌듯하고 흐뭇했다.

한국에서도 인도에 구호품 보내느라 오래전부터 많은 시간 들여 여러 분들께서 애써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디 하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있을까싶다.

물품 포장과 발송하느라 한국에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 통관과 운송에 도움 주신 분들, 물품 옮기느라 이른 새벽부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도로 갈 후원물품 분류 작업하는 자원봉사자들



부산항으로 출발하려고 차량에 옮겨 싣는 모습



컨테이너에서 트럭으로 구호품을 옮겨 싣는 모습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트럭을 수리하는 모습



트럭에서 창고로 물품을 옮기는 건축부 식구들



이불이 너무 좋아 다들 많이 놀랐어요.

민다나오 JTS의 학교건축과 민다나오의 평화

편집팀

인도JTS 사업에 이어 필리핀 민다나오 JTS 사업장의 활동 내용을 3차에 걸쳐 나누어 씁니다. 1편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2, 3회는 연도별로 진행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씁니다.

필리핀 대주교님, 평화정착 지원 요청하다

JTS가 민다나오에 사업을 시작한 것은 JTS 이사장 법륜스님이 2002년 필리핀 막사이사 이상 국제 평화와 이해부분 수상을 계기로, 당시 필리핀의 안토니오 레테스마 대주교님이 한국에서의 평화운동의 경험을 살려 분쟁이 많은 이곳 민다나오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 받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까지 부

키드논(Bukidnon), 라나오델노르페(Lanao Del Norte), 라나오델수르(Lanao Del Sur)주에서 교육시설이 없어서 교육 받지 못하는 34개 지역에 교실 64칸, 송코 평화센터 7칸, 딸라각 장애인학교 기숙사 2칸, 송코 다투홀 2칸의 교실 건축 지원, 원주민 문화 보전 사업, 마을 개발을 위한 농업 지원 및 수도시설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민다나오의 자연·인문 환경

민다나오(Mindanao) 섬은 면적이 약 1,020만 헥타르이며 100년 전만 해도 이슬람교도가 우세한 지역이었으나, 미국 식민당국과 독립후의 필리핀 중앙정부가 카톨릭 교도들을 적극적으로 민다나오로 이주시킨 결과, 이슬람교도는 현재 민다나오 전체인구 2,000여만 명 중 약 25%인 500여만 명에 불과하다.

민다나오에는 이슬람으로 개종되고 민다나오를 그들의 고국으로 여기는 무슬림들, 민다나오의 여러 지역에 정착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문화적인 커뮤니티들'로 알려지고, 높은 오지 주변 지역에 사는 토착 부족들 이렇게 3개의 주요 문화적 그룹들이 살고 있다.

이들 문화적인 공동체와 무슬림들은 그들의 다

채로운 의류, 머리 장식물과 정교한 장식으로 구별이 된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부족과 입는 사람의 지위를 표시해 주는 술들, 조가비들, 구슬들, 그리고 쇠 원반으로 장식된, 수놓거나 꿰매서 붙인 복장을 입는다.

민다나오의 기후는 크게 건기(3, 4월)와 우기(5월~2월)로 나누며, 하루 기온 차는 10도 정도이고, 3월 현재 JTS사무소가 있는 카가얀데오로 시의 온도는 최저 22도에서 최고 32도이다. 산간 지역은 더 서늘하고 비가 잦다. 민다나오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고, 뜨거운 햇살로 식물이 자라기에 최적지이다.

민다나오 원주민들은 친족 간의 분쟁이 잦으며, 외부와 싸울 때는 함께 뭉쳤다가 끝나면 다시 서로 싸운다. 특히, 마라나오 풍습에는 총을 구하긴 어렵지만 부인은 여러 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이 부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칼이나 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표시한다.

민다나오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며, 가장 빈곤한 집단은 농민과(재산이 없고 빈곤함)수공업자와 실업자이다. 1975년에는 74%가 빈민, 13%가 중산층, 13%가 부유층으로 집계되기도 했으며, 97년 통계로는 70~80%가 빈민으로 집계되었다. 농부의 대부분이 토지를 갖고 있지 못하며, 농부 10명당 7명이 소작인이다. 농가의 월 평균 수입은 100,000원 정도이다. 취학 전 아동의 40%가 영양부족상태로 발육속도가 느리다.

민다나오 분쟁과 JTS의 활동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은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에다 자치, 종교, 이념, 지역 경제 불균형 등 복잡한 분쟁요인을 갖고 있어서 60년대 말부터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카톨릭 정부에 대항하는 내전의 주요세력은 공산계 반군인 신인민군(NPA)과 회교도 분리운동집단인 모로 민족해방전선(MNLF),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이슬람근본주의 아부사야프(Abu Sayyaf) 등이다. 이 분쟁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는 기득권 세력과 소외된 세력간의 질서와 반목이다.

마을주민과 회의



JTS는 학교 건축 논의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또 공사 현장에 스스로가 자원봉사자로 학교 짓는 일에 참석함으로써 서로의 협력을 통해 하나의 성과를 완성하는 기쁨도 경험하게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랜 세월 소외되어 살아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닫힌 마음을 열어 평화로운 민다나오를 만들어가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장가는 도중



JTS 사업선정 기준

- ①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최소 4km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 ②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 ③ 학교 건축 과정에 마을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야 한다.



▲ 필리핀 민다나오 전경



▲ 나무시소 타는 오지마을 어린이들



▲ 학교건축 공사에 손 보태는 주민들

JTS 사업의 선정기준 및 시행원칙

JTS가 어떤 지역에 학교를 건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최소 4km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산골이라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먼 거리이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아이들이 학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 가구 수가 최소 4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그 정도가 되어야 유치원 한 칸을 구성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된다. 이런 일들은 직접 추천된 마을을 답사하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센서스 제출을 받아서 확인하게 된다.

둘째는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JTS는 학교 부지에 대해서 마을 주민에게 기증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의 열의를 살펴보는 것도 되며, 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학교 건축 과정에 마을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야 한다. 최종 결정이 되기전까지 몇 번의 마을 회의를 거쳐서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게 되면 JTS와 마을주민 간에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본격적인 학교건축 지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학교 건축 사업장은 초기에는 민다나오 도시 근교의 농촌, 크리스찬 지역에서였다. 이후 산속 원주민 지역 그리고 무슬림 지역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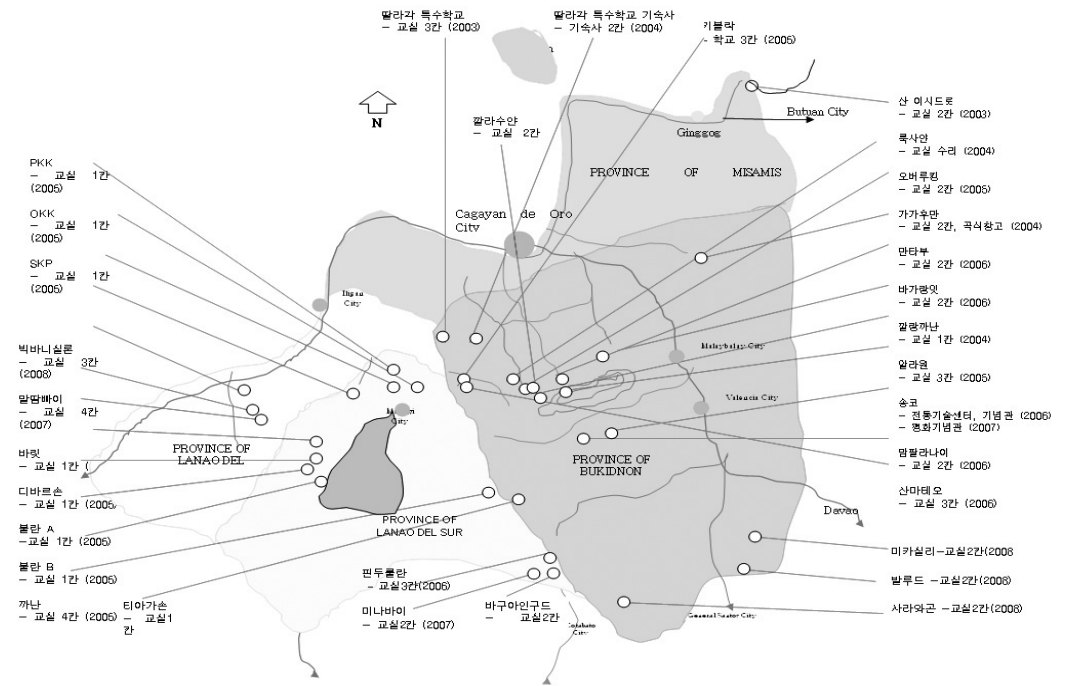
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 원주민 지역 주민들은 외부와의 교류 부족과 정부지원 정책의 차별이나 부재에서 오는 경제적, 문화적인 고립으로 상호간(무슬림, 크리스찬, 원주민간)의 이해 부족과 편견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평화와 발전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지난 5년간의 민다나오 사업을 통하여 외지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서로 교류 개방 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상호 발

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교류와 통합을 위해 민다나오 제이티에스 센터를 지어 농업 기술 훈련과 전수, 의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 리더와 차세대 리더들의 리더십 향상, 그리고 이와 함께 다양한 전통 문화 등을 보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무슬림 지역에서의 교실 건축 요청에 따라 마라나오 무슬림, 마긴다나오 무슬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슬림 부족들을 만나고, 더 외진 곳의 다양한 원주민들과도 교류를 넓혀갈 것이다. ✿

〈2003~2008 필리핀 민다나오 학교 건축 사업장 지도〉



북한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요

8월 14일(금) 오후2시 인천항에서 선적식 가져

글 편집팀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8월 14일(금) 오후 2시 인천항에서 “북한 동포들에게 선물을 보내요♥” 북한어린이돕기 선적식을 진행했다. 구호물품은 이불(200여채)과 의류(14,000벌), 신발(10,000켤레), 양말(20,000켤레), 가방(4,500개), 아토피 크림(5,600개) 등 생필품으로 20피트 컨테이너 3대 분량이다. 물품은 인천항을 15일 출항하여 남포항을 통해 평안남도 (평성시, 신양군, 성천군), 강원도 (원산시, 문천시, 법동군)의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 및 유치원, 탁아소, 소학교 어린이 약 50,000여명에게 전달된다. 현재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어 북한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JTS의 이번 지원이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JTS의 “북한 동포들에게 선물을 보내요♥” 선적식은 북녘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물품 후원을 해주신 후원단체, 후원자님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모다끄레아 티코프시 영우패션(의류), 카파코리아(신발), 실버텍스(양말), 씨에이팜(아토피크림), 금천선원, 직접 이불을 만들어 주신 동학사 스님들과 후원을 하시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JTS는 물품지원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처럼 기부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박스에 담았다. 물품을 보내는 모든 과정에 정성과 사랑을 담았다. 북한에 보내는 물품은 특별히 신경을 더 쓴다. 박스에 물품을 넣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JTS박스가 망가지지 않도록 상자를 던지지 않고 아기 다루듯이 소중하게 포장했다.



▲ 올라가는 컨테이너를 바라보는 후원자님들

선적식 준비를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하기 위하여 8월 7일(금) 울산에 위치한 JTS물류창고에 모인 자원봉사자들 중 대학생 김영룡은 웃으며 “다른 봉사할 때와 달리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힘들지 않고 즐겁게 참가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선물로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 말했다. 이런 마음들이 남김없이 북한 어린이 한명 한명에게 전해질 것이다. JTS는 사랑의 선물보내기로 남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사람의 통일을 만들고자 한다.



▲ 길놀이 해주시 후원단체 신명나눔

JTS의 “북한 동포들에게 선물을 보내요♥” 선적식행사에는 JTS의 후원단체인 서울풍물굿회 신명나눔에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통일나눔의 일환으로 신명나게 사물놀이를 길놀이를 해주었다. 🌸



▲ 선물이 되는 JTS 물품

* JTS 홈페이지 ● NOW활동이야기로 가시면 선적식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에게 의약품은 사랑입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구급함 1만 셋트 보내

글 편집팀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8월 21일(금) 오후 2시 인천항에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의약품은 사랑입니다. 구급함 1만셋트 보내기” 선적식을 진행했다.

150여명의 JTS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선적식을 통하여 지원하는 물품은 핀셋, 가위, 가제, 붕대, 반창고, 면봉 등 19종류의 기초치료제와 상처치료제, 항생제, 해열제, 감기약 등 4종류의 약품을 담은 구급함 1만 셋트로 20피트 컨테이너 5대 분량이다.

구급함 셋트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남포항을 통해서 평안남도 (평성시, 신양군, 성천군), 강원도 (원산시, 문천시, 법동군)의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 및 유치원, 탁아소, 소학교 어린이에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강도 희천시에 있는 발전소와 평안남도 광산 등에서 노동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법륜 이사장님은 “북한은 2006년 대홍수 이후 2007년 2008년 결핵 환자가 급증했으며 결핵 환자 치료가 시급합니다. 아이들이 치료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기계가 아닌 곡괭이나 삽으로, 길은 망치로 바위를 두드려 깨서 만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구급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라고 구급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선적에도 기본 생필품들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도 기초의약품들

이러서 통일부에서도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방송인들의 봉사단체인 길벗모임의 드라마작가 노희경, 배우 김여진님과 함께 참석한 연기자 배종옥님은 “구급함 1만셋트 지원이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이 되길 바라고 뜻 깊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또한 국제로타리클럽 3690지구 정주화 전총재님도 참석하여 “후원한 성금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할 수 있는 구급함이 되어 전달되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누리’ 팀의 풍물놀이로 길놀이를 했으며, 후원자들의 ‘희망만들기’ 퍼포먼스와 발원문을 낭독한 뒤 구급함 상자를 실은 컨테이너를 배에 싣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JTS는 기초의약품을 준비하면서 후원자님들이 원하시는 투명성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통하여 품질을 제공해 주는 기업을 선정했으며, “작은 연고 하나에도, 구급함 상자와 박스에도 JTS 로고를 인쇄하는 등 북녘에서 구급함상자를 열면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살림이 고스란히 전달되길” 빠른 시일내에 아픈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정성을 쏟았다.

또한 물품의 정확성을 위하여 구급함을 조립하고 있던 업체를 방문하여 구급함 상자 속 하나하나를 확인하여 핀셋, 가위, 가제, 붕대, 반창고, 면봉 등 19종류의 내용물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상처치료제, 해열제, 감기약 등 4종류의 약품이 들어가 있는지 품질점검을 철저히 했다. 🌸



▲ 저렴한 비용으로 약품을 제공해주신 일진약품 조길수 사장님



▲ 국제로타리클럽 3690지구 정주화 전총재님



▲ 약품마다 상처가 낫길 바라며 제작했다.

충북도청, JTS와 의 특별한 만남

“함께하는 행복 나눔 바자회”

박현이 한국JTS

지난 6월 27일, 청주시 성안길 철당간에서 충북도청 주관으로 JTS 홍보 대사 배우 한지민, 배종옥씨, 방송작가 노희경씨와 함께 “행복나눔 바자회”가 진행되었다.

바자회는 드라마 “카인과 아벨”에서 새터민 오염지 역으로 활약 하며 촬영지 충북을 널리 홍보한 한지민씨가 충북도 홍보대사를 수락하면서, 형식적인 위촉식을 넘어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하자는 제안으로 이루어진 자리였다.

특별경매, 펜사인회, 문화공연, 일반바자물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정우택 충북지사와 도청 직원, 충북중소기업 등 각계로부터 기증받은 8000여점의 일반바자물품으로 풍성했다.

기증품 중 새 상품은 JTS부스에 진열되었고 판매는 JTS청주회원 10여명과 충북공보관실 직원들이 수고해 주었으며, 다양한 재활용품을 선보인 ‘아름다운 가게’ 부스의 판매총액 중 10%도 JTS에 기부되었다.

펜사인회 진행 후 마이크를 들고 직접 부스에서 물품 판매를 하며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물품도 사 주세요~” 등의 솔직한 멘트와 미소로 청주시민들을 만난 한지민씨, 취재기자에게 국수를 강매해 웃음을 자아낸 노희경 작가 등 이미 JTS와의 캠페인에 익숙한 자연스러운 모습도 돋보였다.

원활한 바자회 행사를 준비해 준 충북도청, 물품판매 자원봉사로 참여한 JTS청주회원들, 함께해서 더 기쁘고 풍성했던 아름다운 가게, 참여하신 청주시민 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신선일 한국JTS

6월이 맞아 싱게 햇살이 뜨거운 토요일 오후 청주 시내 한복판에서 행복을 나누는 바자회가 열렸다. 충북도청과 아름다운 가게와 JTS가 함께 하는 바자회란다. 행복 나눔 바자회. 행복을 나누다니 행사 제목 참 좋다.

자원봉사할 사람은 조금 미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두 시간 쯤 전에 행사장에 도착하니 도청 측에서 준비한 앞치마와 JTS 어깨띠를 나눠준다. 우연히도 앞치마와 어깨띠가 맞춘 듯이 같은 톤의 따뜻한 느낌의 주황 빛깔이다. 판매할 코너와 대충의 물건값을 체크하면서 참새 방앗간 못 지나치듯 바자회장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물건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심지어 일반의 힘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다.

천막치고 물건 진열해 놓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둘러보다가 너무 싼 값에 놀라서 이거 저거 잘 사주신다. 물론 목이 터져라 외치는 JTS 자원봉사 판매자들의 열정도 한 몫 하고 있다. 무대위에 올라간 JTS 홍보대사 한지민씨와 배종옥, 노희경 작가의 목소리가 뜨거운 토요일 오후를 더욱 달군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랑을 나눠달라는 그들의 호소가 JTS 자원봉사자들의 맨투맨 행위와 커다란 합창을 이룬다.

4시간여의 바자회장을 정리하고 그날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모금함에서 나온 금액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아서 뿌듯함은 배가 되었다. 집으로 가는 내 어깨에는 바자회 시작부터 눈독을 들여놓고 행여 라도 누군가에게 팔릴까봐 노심초사했던 주황색 천 가방이 걸려있다. 봉사도 하고 마음에 쏙 드는 물건도 사고, 일석이조가 별건가? 🌸



국내소식



“온라인으로 JTS소식지를 볼 수 있습니다”

JTS홈페이지(www.jts.or.kr) ⇨ NOW활동이야기
⇨ 소식지 ⇨ PDF다운로드

온라인으로 소식지를 받아보시면 인쇄비용을 줄이고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실 회원분들은 02-587-899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월간지 마리끌레르와 캠페인 진행

월간지 마리끌레르가 지면을 통해 배우 배종옥씨와 함께하는 JTS 오렌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JTS와 함께 봉사활동을 경험한 연예인의 사진과 인터뷰로 꾸며지며 향후 1년간 진행됩니다. 100%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JTS의 활동을 소개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기쁨을 많은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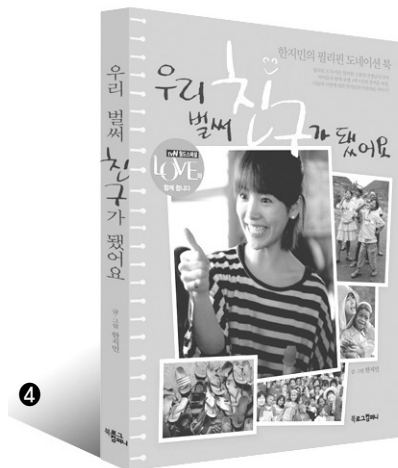
2. 네이버와 신민아 '해피에너지' 진행

7월 14일부터 배우 신민아씨와 네이버가 함께 “해피에너지” 캠페인이 진행 되었습니다. 네이버를 이용하는 많은 네티즌들이 “해피빈”을 기부해주셨으며, 8월 19일 현재 12,803,9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돈은 JTS를 통해 인도의 모자보건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3. 동대 김동완 교수님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7월 21일 동국대학교 김동완교수님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길벗 사회 공헌 팀을 통해 JTS에 일금 500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날 JTS 강당에서 조촐하게 기금전달식과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4. 한지민 도내도선북 발간, tvN 방영

8월 15일 밤 9시 tvN의 “LOVE”를 통해 필리핀 알라윈을 방문한 배우 한지민님과 작가 노희경님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동행 했던 사진작가 김희원님이 찍어주신 사진과 한지민씨가 직접 쓴 글이 실린 화보집 “우리 별서 친구가 됐어요”가 북로그컴퍼니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인쇄 전액과 출판사 수익의 일부는 JTS에 기부됩니다.



5. 싸이월드 '나눔서포터즈' 온라인 모금 캠페인

인터넷포털 싸이월드(cyworld.com)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서포터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네티즌의 댓글, 도토리 후원, 이에 상응한 싸이월드 본사의 기부금 총 3,832,297원이 모아졌으며 인도 불가촉천민, 극빈 가정 및 극빈 어린이를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모금 캠페인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네티즌 및 싸이월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6. 일산중산중학교 사랑의 저금통으로 모은 기금 전달

일산 중산중학교에서는 굶주리는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전교생들이 사랑의 동전모으기를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수거한 저금통을 각 학급별로 계수하여 은행까지 가서 직접 JTS에 입금을 해주었다. 모금한 총액은 3,970,546원으로 이 기금은 인도 및 필리핀 등의 어린이들의 기초교육과 의료 및 급식에 쓰일 예정이다. 무거운 동전을 계수하여 은행으로 나르고 입금하는 힘든 과정을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신 학생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저금통에 동전 하나하나 소중히 모아주시는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7. 대구 학남중학교 학생들 JTS에 사랑의 저금통 전달

대구 학남중학교 학생들 JTS에 사랑의 저금통 전달하였다. 이날 저금통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 몇몇 학생들은 우유병을 저금통 삼아 동전을 모아오기도 했고, 커다란 요구르트통에 한가득 동전을 모아오기도 했다. 저금통을 분실한 몇몇 털털한 학생들은 편지봉투에 용돈을 모아와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봉투가 30개나 모였다고 한다. 학생들과 우리 봉사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학남중학교 선생님들과 정성으로 동참해준 학생들의 아름다운 마음에도 감사하다.

해외소식

병원상급생 이동진료 현장 실습프로그램 참가

지난 7월 25일 라홀라가르 마을 이동진료에 '토요일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여섯 명의 병원 상급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 날 약 140여명의 마을주민이 계몽교육에 참가하였고, 총 7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병원 상급생들은 환자를 접수받는 일과 처방된 약을 조제하는 일을 도왔고, 한편에서는 모자보건 업무를 했습니다.

상급생들은 오전에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평소에 이동진료를 같이 나가지 못했는데, 현장실습 프로그램 덕분에 모처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진료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염소새끼를 나눠준다

인도JTS는 가난하고 가축이 없는 60여 가구에 염소새끼 암컷 2마리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가정에서는 일 년 내내 염소젖을 먹을 수 있고,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장만할 수 있기에 염소를 받는 사람들은 무척 행복해 하였습니다. 염소를 받는 사람들은 염소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배수로 및 마을 도로 정비 등 마을 공동 노동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39명 필리핀 선재수련하다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제 10차 선재수련이 까나안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인 참가자 39명, 필리핀 마을 청년들 17명이 함께 교실건축 공사와 마을 텃밭 가꾸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자원활동가 파견”

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인도, 필리핀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송현자님은 8월 24일 필리핀으로, 손주희님은 9월 1일 인도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연정, 김은경, 이세형, 김아정, 김영룡 님이 9월 18일에 갈 예정입니다. 7분 모두 100일 공동체생활을 마치고 한 달간 JTS 해외 봉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봉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 부키드논 주 리보나 시 실리폰 지역에서 제이티에스 이사장인 법륜스님과 박지나 해외본부장, 김애경 JTS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제이티에스 본부에서 서울 장원 로터리클럽 백성희 회장, 4명과 마닐라정토회 대표 이원주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이티에스 농업 기술 훈련센터 착공식을 가지고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하였습니다. 이어 알라원을 방문하고, 다음날 다몰록시의 파곰퐁, 블루안 학교 공사 현장, 송코의 평화홀 그리고 탈라각에 있는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사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몰록시의 송코Tiongco시장님과 민다나오 평화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이와 더불어 몰리타 강변과 뽕람이 강변 지역에 행정, 보건, 교육 지원이 거의 없는 9개 마을들에 학교를 추가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탈라각 특수학교에서는 Region X (지역 10) 교육청장과 부키드논 주 교육청장과 만나 지역 교육 현황과 알라원, 오버루킹, 산마테오 등의 제이티에스 지원학교에 교사 파견을 다시 한번 더 요청하였고 교육청장님들은 긍정적으로 지원 약속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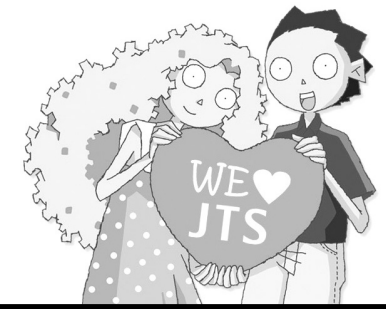
캄보디아

지난 7월 8일~11일까지 내년 초등학교를 지원할 라타나끼리 주의 8개 마을을 답사하고 왔다. 라타나끼리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국경지역이며 산악지역으로, 정글이 주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프놈펜에서 라타나끼리까지 승용차로 꼬박 12시간이 걸린다. 이곳은 캄보디아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라타나끼리는 다른 주와는 달리, 7개의 다른 원주민들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한 채 라타나끼리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원주민들의 캄보디아어 문맹률은 아주 높고 산악지역으로써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하다.



라타나끼리 마을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09년 6월 1일 - 2009년 7월 31일

문의전화 02-587-8992

인도 및 제3세계	김영선 P0019865	박춘환 P0040290
(주)다원택 S0041388	김용미 P0028862	박호남 P0041362
(주)노아드 S0042073	김용욱 P0041180	배기선 P0041825
55차 개장 S0041526	김은경 P0041049	배민정 P0040769
65차 일개 S0041528	김중영 P0039281	배복애 P0039455
감수민 P0040718	김정희 P0040863	백석기 P0008663
감승현 P0040714	김준한 P0041173	배수영 P0038987
강경필 P0040365	김준환 P0040616	배준식 P0027179
강민형 P0040133	김중자 P00403770	백대현 P0040137
강철호 P0041086	김진형 P0040792	백두현 P0032421
고영희 P0041464	김창수 P0040755	백미경 P0041076
곽진희 P0040761	김태균 P0041990	백주도서점 S0040770
교사정토회 S0042178	김태효 P0041170	서무성 P0036365
관중홀 P0038601	김한민 P0040786	서상애 P0039297
김경호 P0041335	김현순 P0040130	서지선 P0039899
김경수 P0040538	김향인 P0040378	서진하 P0033412
김경숙 P0013591	김혜숙 P0038252	서창임 P0040147
김경숙 P0040041	김혜정 P0040635	서현주 P0040627
김경순 P0041167	김홍구 P0040619	소프트포럼 S0041389
김경월 P0031626	김화석 P0033749	손지연 P0041364
김경자 P0040791	김희중 P0041037	송보철 P0040929
김경희 P0014190	나영찬 P0040530	송승희 P0040142
김경희 P0040098	노혜경 P0038511	송이화 P0041158
김경희 P0041316	노기정 P0040765	신광재 P0040358
김교은 P0041029	류동철 P0040752	신명숙 P0040361
김나경 P0040721	박경선 P0039144	신민숙 P0040517
김나영 P0040404	박다혜 P0040220	신연경 P0039295
김남선 P0001880	박문선 P0036855	신영숙 P0040266
김남희 P0031566	박미정 P0040776	신은주 P0040744
김내건 P0040556	박민 P0040420	신영보 P0040636
김내희 P0010155	박병주 P0040699	심재선 P0042177
김동근 P0026609	박분남 P0041855	안연정 P0040533
김동숙 P0014337	박상률 P0039360	안진규 P0041341
김환희 P0041152	박상연 P0041053	안희옥 P0040042
김명신 P0033183	박상효 P0041019	양부석 P0040412
김무진 P0041073	박선현 P0040802	양일권 P0040921
김문경 P0041888	박세진 P0040620	양현자 P0041829
김미경 P0040722	박영선 P0040512	에스케이뉴니케이션즈(주)
김미영 P0040704	박영훈 P0015929	P0020894
김미정 P0036546	박옥지 P0041630	연주 P0040143
김민경 P0041014	박은정 P0041223	오상희 P0029365
김민우 P0041618	박이슬 P0040217	위수정 P0040764
김병수 P0040730	박재성 P0041145	유선진 P0038865
김병진 P0031618	박정선 P0012816	유승환 P0033107
김소목 P0040369	박정선 P0040413	유정아 P0041236
김소연 P0040509	박정은 P0023028	유희수 P0040359
김수정 P0041908	박중혁 P0041827	윤봉애 P0024891
김숙자 P0003225	박주연 P0040759	윤승현 P0040931
김순옥 P0037652	박준수 P0040751	윤연진 P0041165
김승진 P0006062	박지영 P0041155	윤영모 P0041084
김아영 P0041072	박지현 P0040785	윤유탁 P0040614
	박진경 P0040794	윤주란 P0041187

이미경 P0040779	정호준 P0002582	김명신 P0033183
이수정 P0041667	조계형 P0040758	김무진 P0041073
이숙미 P0011089	조미라 P0038525	김미경 P0040722
이연우 P0040766	조정민 P0036982	김미숙 P0041340
이영기 P0040634	조정민 P0041199	김미영 P0040704
이영수 P0041471	조정호 P0040215	김미영 P0040793
이영숙 P0005709	조지은 P0040623	김민경 P0040775
이유경 P0040078	조준국 P0038147	김민경 P0041014
이유진 P0042009	채호준 P0040632	김민재 P0040370
이윤정 P0040367	천진영 P0039214	김복자 P0040132
이윤종 P0005106	최광순 P0041261	김성창 P0041195
이은정 P0041028	최선령 P0041485	김소연 P0040396
이인환 P0038441	최수환 P0029916	김소숙 P0037652
이정훈 P0040363	최애미 P0040532	김승도 P0003946
이정석 P0040077	최영우 P0040559	김아영 P0041072
이정숙 P0041347	최영주 P0040311	김연희 P0040274
이중례 P0019401	최우리 P0040923	김영범 P0041435
이지은 P0039251	최윤아 P0041500	김영욱 P0040804
이진경 P0041836	최홍섭 P0004748	김용미 P0028862
이한길 P0040563	허경숙 P0018803	김은정의딸 P0040212
이한수 P0041494	한살림경남 S0022191	김용영 P0039281
이향진 P0040777	한선화 P0040169	김익숙 P0041880
이향숙 P0004938	한영채 P0040941	김장남 P0042068
이향숙 P0028520	허주희 P0040789	김정희 P0041038
이한재 P0041016	허택 P0040354	김종숙 P0039859
이혜정 P0040141	홍수현 P0038015	김주영 P0038522
이홍자 P0031258	홍승향 P0008968	김준환 P0041173
이화연 P0040208	황기람 P0036547	김지수 P0003417
임선희 P0040859	황해경 P0041178	김진형 P0040792
임상민 P0040745	황혜숙 P0037965	김태균 P0041990
임승명 P0041336		김태성 P0033175
임정수 P0040436		김한민 P0040786
임지현 P0040145	북한어린이들기	김행순 P0040130
장수임 P0041171	김수민 P0040718	김향임 P0040378
장순봉 P0013004	김승현 P0040714	김혜정 P0031833
장윤석 P0040214	강연화 P0041179	김홍구 P0040619
장진경 P0041189	강주영 P0036239	김희경 P0040558
장혜숙 P0040612	강철훈 P0041086	김희중 P0041037
전상욱 P0041328	경해운 P0025424	노종숙 P0040216
전영선 P0036283	곽경덕 P0040085	류동철 P0040752
진지희 P0041327	곽진희 P0040761	류미금 P0022264
정달상 P0039416	구재성 P0039120	류성미 P0041022
정미희 P0040518	권향연 P0041234	문금숙 P0014748
정상훈 P0041184	김경수 P0040538	류경선 P0039144
정상채 P0041172	김경순 P0041167	박미옥 P0015188
정숙영 P0030781	김경희 P0040098	박미정 P0040776
정원교 P0014021	김교은 P0041029	박병주 P0040699
정의혁 P0041036	김남선 P0001880	박상률 P0039360
정이나 P0041329	김대희 P0010155	박상연 P0041053
정재완 P0041030	김대희 P0041237	박성조 P0040742
정지예 P0040364	김덕연 P0021374	박상효 P0041019
정혜경 P0041376	김래근 P0036952	박선현 P0040802

박영선 P0040512	유현성 P0032032	조시은 P0040932
박옥지 P0041630	윤선일 P0041527	조연정 P0040876
박우임 P0040944	윤승현 P0040931	조정민 P0036982
박은정 P0041223	윤연진 P0041165	조정민 P0041199
박재성 P0041145	윤택현 P0023414	조정호 P0040215
박재성 P0041631	이미경 P0040779	조준국 P0038147
박재홍 P0040355	이미희 P0040102	조혜진 P0041264
박정선 P0040413	이병만 P0021749	채호준 P0040632
박정순 P0021465	이병희 P0041067	최경호 P0041542
박종하 P0041988	이빛나 P0033352	최광순 P0041261
박지영 P0041155	이상희 P0037832	최병석 P0040706
박지현 P0040785	이수남 P0039450	최선령 P0041485
박진만 P0040531	이수정 P0041667	최선호 P0036966
박진희 P0029983	이수형 P0040862	최수임 P0024159
박철웅 P0033699	이수형 P0039809	최창민 P0040360
박춘환 P0040290	이신학 P0041008	최예대운 P0022380
박현아 P0041156	이연우 P0040766	최우리 P0040923
배민정 P0040769	이연희 P0040366	최윤아 P0041500
배복애 P0039455	이영배 P0041177	최은자 P0040535
배수영 P0038987	이은경 P0028540	최정미 P0041483
백진철 P0041151	이은정 P0041028	최정희 P0033715
백두현 P0032421	이인수 P0040213	최지은 P0041339
백은경 P0022369	이점덕 P0041194	칠곡어린이집
부천열린법회	이점숙 P0042571	S0041993
성나경 P0037511	이정미 P0032510	하동호 P0040248
성현주 P0040627	이진경 P0041836	한미희 P0030093
손성순 P0041224	이혜경 P0040942	한선화 P0040169
손재희 P0022869	이현재 P0041016	한승희 P0042056
손지연 P0041364	이혜숙 P0040087	한영채 P0040941
송승희 P0040142	이혜진 P0041010	한진이 P0036611
송이화 P0041158	이화연 P0040208	허진욱 P0041617
신민숙 P0040517	임정수 P0040436	홍미숙 P0014521
신은주 P0040744	임지현 P0040145	홍승희 P0040423
신정희 P0040743	장금옥 P0009237	
심영보 P0040636	장미숙 P0031821	
심지연 P0020916	장병준 P0040763	
안기영 P0034216	장수임 P0041171	고청무 P0010679
안연정 P0040533	전경옥 P0040757	곽경덕 P0040085
안향숙 P0039349	전성철 P0041366	구재성 P0039120
안희옥 P0040042	정명석 P0040702	권영덕 P0042384
양일권 P0040921	정미희 P0040518	권이영 P0040207
양상순 P0002341	정상성 P0041675	김경순 P0041167
연주 P0040143	정상훈 P0041184	김경희 P0040098
오경하 P0032223	정석완 P0040631	김남희 P0031566
용화선원정년회	정성채 P0041172	김동민 P0041031
P0032717	정유진 P0040630	김성애 P0039304
위수정 P0040764	정의혁 P0041036	김이사 P0041147
위영경 P0040103	정재대 P0041030	김아영 P0041072
유윤식 P0005421	정지예 P0040364	김연희 P0039281
유정아 P0041236	정혜년 P0041027	김진주 P0010307
유혜정 P0041492	조미라 P0038525	김태균 P0041990

김홍구 P0040619	이수형 P0040862	서세진 P0040877
노류경 P0039697	이연우 P0040766	서호필 P0013592
민미라 P0026732	이연희 P0040366	생낙석 P0012233
박상률 P0039360	이주형 P0038684	손지연 P0041364
박상효 P0041019	이항숙 P0028520	신민숙 P0040517
박재성 P0041145	이현재 P0041016	신은주 P0040744
박정미 P0037062	이현지 P0031024	안상준 P0017264
박정선 P0040413	임정수 P0040436	양일권 P0040921
박종하 P0041988	조미라 P0038525	오윤정 P0010134
박정록 P0041930	조준국 P0038147	용화선원정년회
박춘환 P0040290	조현지 P0027992	P0032717
손지연 P0041364	최광순 P0041261	유소림 P0020909
심유현 P0002366	한선화 P0040169	유영주 P0041365
양일권 P0040921	황혜숙 P0037965	유은경 P0005036
윤봉애 P0024891		윤성순 P0006291
이상한 P0033371		윤연진 P0041165
이연우 P0040766	인도모자보건	육곡의원 S0020912
이유진 P0042009	강인숙 P0015932	이숙영 P0039809
이환재 P0041016	곽진희 P0040761	이연우 P0040766
임정수 P0040436	권태윤 P0029090	이영희 P0040617
장금화 P0012104	김경순 P0041167	이정숙 P0041824
조준국 P0038147	김광원 P0010268	이창윤 P0009021
조현지 P0027992	김동숙 P0014337	이재윤 P0017562
지현숙 P0037134	김미선 P0012071	이한수 P0041494
최광순 P0041261	김미영 P0040793	이향숙 P0028520
추현재 P0011922	김미희 P0017284	이한재 P0041016
	김수은 P0042010	임영애 P0009187
	김아영 P0041072	임정수 P0040436
결핵퇴치	김이경 P0013873	장금자 P0012959
(주)김경순 P0041167	김용미 P0028862	장서운 P0005501
김덕정 P0014551	김민숙 P0015407	장혜자 P0019913
김명신 P0033183	김정자 P0014876	정성태 P0009546
김미정 P0040790	김종목 P0041470	정지예 P0040364
김아영 P0041072	김창근 P0020969	조미라 P0038525
김용미 P0028862	김한민 P0040786	조준국 P0038147
김은 P0036363	김환희 P0040922	주문돈 P0020880
김용영 P0039281	김형석 P0013066	천진영 P0039214
김태균 P0003720	김혜숙 P0038252	최경순 P0012305
김한민 P0040786	김홍구 P0040619	최광순 P0041261
김홍구 P0040619	김홍금 P0016221	최애란 P0040784
류미금 P0022264	박영선 P0040512	최영우 P0020779
박재성 P0041145	박은정 P0041223	최영준 P0040782
박정선 P0040413	박재성 P0041145	한선화 P0040169
박진원 P0039131	박정선 P0040413	해정 P0018319
박춘환 P0040290	박종하 P0041988	홍미숙 P0014521
성외경 P0039576	박지현 P0040785	황혜숙 P0037965
손지연 P0041364	박춘환 P0040290	
신민숙 P0040517	배수영 P0038987	
양일권 P0040921	배주연 P0038292	
오현진 P0039266	배희라 P0030886	
유중순 P0039497	백두현 P0032421	
윤연진 P0041165	서세영 P0040881	

명단 확인란

09년 6월 1일부터 09년 7월 31일까지 은행으로 후원금을 주셨으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연말영수증이 발급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정보가 필요하니 꼭 연락바랍니다.(입금일, 이름, 금액)
문의전화 : 02-587-8992

2009년 6월 1일~2009년 7월 31일

6/5	감사합니다	5,000	6/10	김보경	1,000,000
7/3	감사합니다	5,000	7/10	김보경	1,000,000
7/6	강미경	20,000	6/1	김선옥	5,000
6/22	강미란	10,000	6/30	김선옥	5,000
7/20	강미란	10,000	7/15	김성은	200,000
6/29	강불희	40,000	6/10	김성초	100,000
7/29	강불희	40,000	6/25	김수연	5,000
6/25	강세환	5,000	7/27	김수연	5,000
6/1	강영남	50,000	6/10	김승하	20,000
6/30	강영남	50,000	6/4	김승현	100,000
7/30	강영남	50,000	6/15	김애숙	10,000
6/27	강은옥	1,000,000	7/15	김애숙	10,000
6/15	강임식	40,000	6/5	김억권	10,000
7/15	강임식	40,000	7/8	김억권	10,000
6/10	고인순	10,000	6/25	김연옥	10,000
7/14	고인순	10,000	7/27	김연옥	10,000
6/25	곽미미	10,000	6/10	김영애	10,000
7/27	곽미미	10,000	7/10	김영애	10,000
7/17	관음사제생원	1,000,000	7/28	김영희	100,000
6/25	구영미	3,000	6/12	김예래	10,000
7/27	구영미	20,000	7/27	김예래	10,000
7/27	구영미	3,000	7/21	김옥래	419,180
6/10	구영희	45,000	6/6	김용식	30,000
6/30	구정애	70,000	6/1	김원태	10,000
7/1	권금희	10,000	7/1	김원태	10,000
6/10	권영경	30,000	6/1	김원희	10,000
7/13	권영경	30,000	6/10	김유철	30,000
7/20	권예중	50,000	7/2	김유철	30,000
6/29	권용희	50,000	6/29	김은상	3,000
6/29	권용희아들2명	10,000	6/30	김은상	3,000
6/29	권혁준	10,000	7/2	김은상	3,000
7/27	권혁준	10,000	7/6	김은상	3,000
6/10	급여	500,000	7/6	김은상	3,000
7/10	급여	500,000	7/9	김은상	3,000
6/1	김갑순	5,000	7/14	김은상	3,000
6/30	김갑순	5,000	7/20	김은상	3,000
7/31	김갑순	5,000	7/27	김은상	3,000
7/21	김경란	40,000	6/18	김진디	50,000
6/4	김경숙	80,000	6/25	김재혁	10,000
6/26	김계남	1,000	7/27	김재혁	10,000
7/27	김계남	1,000	6/15	김점순	20,000
7/14	김기영	200,000	7/15	김점순	20,000
6/5	김기환	100,000	6/2	김정미	5,000
7/6	김기환	100,000	7/2	김정미	5,000
6/22	김길중	20,000	6/25	김정숙	20,000
7/20	김길중	20,000	7/24	김정숙	20,000
6/1	김덕화	10,000	7/17	김정연	300,000
7/1	김덕화	10,000	6/15	김조현	100,000
6/26	김명지	30,000	6/4	김준연	100,000
7/23	김명지	30,000	7/28	김지연9서러벌	92,740
6/18	김미경	10,000	6/25	김춘심	10,000
7/20	김미경	10,000	7/27	김춘심	10,000
6/25	김미숙	10,000	6/28	김태구	20,000
7/16	김미향	4,000	6/25	김태민	30,000
7/1	김미현	10,000	6/4	김태원	100,000
7/22	김민정	30,000	7/2	김현민	50,000
7/10	김민주	100,000	6/10	김현우	20,000

7/10	김현우	20,000	6/26	박진원	10,000
7/2	김혜영	10,000	7/1	박찬희	30,000
6/13	김희자	10,000	6/22	박해령	10,000
7/9	김희자	10,000	7/20	박해령	10,000
6/3	꿈에드소원통일	10,000	7/22	박해봉	30,000
7/3	꿈에드소원통일	10,000	6/5	박화정	20,000
6/5	나모니카	10,000	7/6	박화정	20,000
7/6	나모니카	10,000	6/16	반성호	10,000
7/4	남재환	20,000	7/9	반성호	10,000
7/15	남정옥	20,000	7/12	배명숙	80,000
6/10	노재성	10,000	6/16	배인철	20,000
7/10	노재성	10,000	7/16	배인철	20,000
6/1	대한불교조계	10,000	7/2	배진	30,000
6/30	대한불교조계	10,000	6/8	백경희	10,000
7/31	대한불교조계	10,000	7/7	백경희	10,000
7/1	도달선	100,000	6/22	백운재	50,000
6/25	류화연	5,000	7/22	백운재	50,000
7/27	류화연	5,000	7/3	변환동임영연	21,000
7/18	명신여교	10,000	6/19	북한기금구호	340,000
6/19	문보경	10,000	7/21	북한돕기	50,000
7/3	문용규	50,000	7/27	북한어린이아들	30,000
6/25	문화경	10,000	7/2	북한어린이지원	20,000
7/27	문화경	10,000	6/1	북한지원	50,000
6/25	민병도	30,000	7/17	북한후원금	70,000
6/1	박경민	10,000	6/11	생일보시금	20,000
7/1	박경민	10,000	6/16	서모회	30,000
6/26	박광민	50,000	7/16	서모회	30,000
7/27	박광민	50,000	6/3	서보원	10,000
6/22	박낙범	5,000	7/2	서보원	10,000
7/20	박낙범	5,000	6/5	서선영	30,000
6/18	박말숙	47,110	7/6	서선영	30,000
7/1	박미은	30,000	7/6	서선영	10,000
6/22	박미희	10,000	6/25	서은라	10,000
7/20	박미희	10,000	7/27	서은라	10,000
6/29	박상기	10,000	6/1	서현주	30,000
7/29	박상기	10,000	6/30	서현주	30,000
6/11	박상아	2,000	7/30	서현주	30,000
7/10	박상아	2,000	6/17	설정숙	200,000
6/22	박상희	10,000	7/17	설정숙	200,000
7/21	박새빈	10,000	6/22	성경연	20,000
7/19	박새빈	200,000	7/27	성경연	20,000
6/29	박선영	10,000	6/12	성불하	10,000
7/29	박선영	10,000	7/10	성불하	20,000
7/21	박성진	38,000	7/13	성재길	7,200
7/21	박소현,허영	110,000	6/25	손병수	10,000
7/27	박수영	70,000	6/2	손영숙	20,000
7/14	박수현	50,000	7/1	손영숙	20,000
7/9	박승주	40,000	6/2	손윤주	5,000
6/24	박언희	10,000	6/18	손윤주	10,000
6/15	박영식	100,000	6/29	손윤주	10,000
6/22	박우돈	10,000	6/9	솔솔유치원	368,100
7/20	박우돈	10,000	6/17	송순선	10,000
7/1	박우희	50,000	6/22	송연석	10,000
6/1	박정자	5,000	6/1	송우석	5,000
6/30	박정자	5,000	6/30	송우석	5,000
7/31	박정자	5,000	7/31	송우석	5,000
7/22	박지윤	30,000	7/1	송준영	50,000

6/15	송현정	5,000	6/22	윤효진	50,000
7/15	송현정	5,000	6/21	윤후남	50,000
6/11	신미화	10,000	7/8	이경희	30,000
7/13	신미화	10,000	6/1	이남숙	10,000
6/1	신비로운여인	20,000	7/1	이남숙	10,000
7/1	신비로운여인	20,000	6/25	이남지	20,000
6/23	신승혜(필치과)	57,610	7/27	이남지	20,000
6/10	신영규	40,000	7/10	이동숙	20,000
6/2	신영희	20,000	6/25	이미숙	10,000
7/2	신영희	20,000	7/21	이미순	100,000
6/25	신용옥	10,000	7/27	이미희	23,000
7/27	신용옥	10,000	6/1	이민영	10,000
6/3	신은경	10,000	7/2	이민영	10,000
7/3	신은경	10,000	7/29	이민영	10,000
6/1	신현정	10,000	7/12	이상갑	20,000
6/30	신현정	10,000	6/1	이선희	50,000
7/30	신현정	10,000	6/30	이선희	50,000
6/17	심재은	5,000,000	6/22	이상옥	10,000
6/4	심재은	10,000	7/22	이상옥	10,000
7/3	심재은	10,000	7/9	이수경	5,000
6/8	아름다운마음	100,000	6/22	이수진	10,000
7/15	아무개	50,000	7/27	이수진	5,000
7/1	안수연	10,000	7/29	이승주	30,000
6/22	안옥승	5,000	6/29	이성희	10,000
7/21	안옥승	5,000	6/22	이안용	10,000
6/26	안인수	30,000	7/21	이안용	10,000
6/26	안정심	12,000	6/8	이연숙	10,000
6/25	안혜숙	10,000	7/7	이연숙	10,000
6/25	안혜숙	10,000	6/25	이영선	10,000
7/27	안혜숙	10,000	7/27	이영선	10,000
7/27	안혜숙	10,000	7/1	이영숙	20,000
6/30	안효신	10,000	6/25	이영애	10,000
7/30	안효신	10,000	7/27	이영애	10,000
6/1	양나래	10,000	7/13	이원주	30,000
6/30	양나래	10,000	7/10	이윤희	20,000
7/30	양나래	10,000	6/1	이은희	20,000
7/10	양차돌	30,000	7/1	이은희	20,000
7/21	역불사	563,000	6/15	이인식	10,000
7/21	역불사	1,000,000	7/15	이인식	10,000
6/17	여영주	10,000	6/24	이재명	100,000
7/21	여영주	10,000	7/1	이정수	30,000
6/12	여주교도소	20,000	7/27	이정연	10,000
7/13	여주교도소	20,000	6/22	이정옥	10,000
6/22	연미경	5,000	7/20	이정옥	10,000
7/20	연미경	5,000	6/3	이주석	10,000
6/10	윤경희	5,000	6/22	이주영	20,000
7/10	오경희	5,000	7/22	이주영	20,000
6/8	유광호	15,000	6/1	이주철	10,000
7/6	유광호	15,000	6/30	이주철	10,000
6/22	유상혁	10,000	7/30	이주철	10,000
7/20	유상혁	10,000	6/17	이재학	10,000
6/1	유지일	60,000	7/20	이재학	10,000
6/30	유지일	60,000	6/15	이춘례	30,000
7/30	유지일	60,000	7/15	이춘례	30,000
6/17	윤보연	10,000	6/9	이희규	10,000
6/22	윤성희	20,500	6/17	이현숙	5,000

7/20	이현숙	5,000	6/15	조명순	10,000
6/10	이혜옥	10,000	7/15	조명순	10,000
7/10	이혜옥	10,000	7/24	조연희	100,000
6/2	이혜주	20,000	6/1	조영순	10,000
7/9	이혜주	20,000	6/30	조영순	10,000
7/6	이홍자	40,000	7/30	조영순	10,000
6/10	이화순	20,000	6/1	조은희	20,000
7/10	이화순	20,000	6/7	조정선	20,000
6/4	인도금강회	270,000	6/27	조종희	20,000
6/28	인도돕기후원금	100,000	7/7	조효근	70,000
6/10	임성철	10,000	7/30	주경화	150,000
6/1	임은주	20,000	6/5	진영배	20,000
6/30	임은주	20,000	7/10	진영배	20,000
7/31	임은주	20,000	6/1	채현주	10,000
7/1	임종란	10,000	7/15	채현주	10,000
7/25	임종란	10,000	6/30	천성희(하늘꽃)	10,000
6/16	임창숙	20,000	7/12	창파교회	190,000
6/30	임창숙	20,000	6/10	최명임	5,000
7/30	임창숙	20,000	7/10	최명임	5,000
7/21	임재성	10,000	7/1	최봉자	150,000
6/3	장경숙	30,000	6/19	최순이	50,000
7/3	장경숙	30,000	7/27	최순황	30,000
6/29	장영순	10,000	7/15	최어순	100,000
7/27	장영순	10,000	7/16	최영지	50,000
7/6	장옥주	5,000	6/17	최영택	30,000
7/15	장원련	10,000	7/28	최영희	20,000
6/1	장현선	20,000	6/5	최은아	5,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자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기금 02.587.8992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간급구호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